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智娜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ials of object
expressed in the art make-up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劉 貞 珠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智娜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rials of object
expressed in the art make-up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8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劉 貞 珠

劉貞珠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8月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국 문 초 록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은 다양화, 전문화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율성을 표현하고, 각 미술 양식에 나타났던 조형 예술 의지와 표현 기법, 소재들을 재조명하는 행위를 통해 창조적인 실험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이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로써 다양한 소재로 신체를 장식하고 개성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미의 세계라 볼 수 있다. 신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트 메이크업은 획일화된 미의 개념이 아니라, 원시 이래로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화 된 거대한 문화로서의 형성이라 말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트 메이크업을 새로운 차원의 독자적인 예술의 체계로 넓혀준 오브제의 개념을 연구하고 오브제 표현이 나타난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을 살펴봄에 그에 사용된 오브제의 다양한 소재들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인의 미적 의지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인 대량생산된 공업제품들을 소재로 이용하여 디자인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여 소재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 주었다.

일상과의 경계를 허문 오브제의 개념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고 있다. 미술에서 표현의 주체가 작가이듯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선택에 의해 사물들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조형의 자유로운 변형매체로 새롭게 인식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화장의 분야로서 뷰티 메이크업에서 아트 메이크업의 미적 표현을 넓히는 새로운 대중예술을 형성시키기에 이르렀으며, 아트 메이크업의 시각적 화려함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독특한 디자인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다.

오브제는 작가의 표현에 적합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소재로 가능하며

개성과 미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되는 소재를 콜렉션지나 메이크업 서적, 패션 잡지 등을 통해 새의 깃털, 나뭇잎 종이(색종이 신문, 비닐소재, 레터링, 색상 테이프등), 섬유(레이스, 망사 등), 스톤, 시퀸, 스팅글류, 금속류, 기타재료(스트로우, 옷핀, 알루미늄, 금속수세미, 클립, 지퍼 나사못, 캔뚜껑 등)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소재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게 되었다. 이런 소재의 확장은 독특하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제작은 현대 산업 문명사회에서 생산되어지는 컴퓨터 부품이나 공업제품과 같은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모아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 양식은 전통적인 디자인의 개념에서 벗어나 소재의 확장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발상을 가져와 인간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반영하여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재료가 아트 메이크업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아트 메이크업의 일반적 고찰	4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4
2. 아트메이크업의 기원	5
3. 아트메이크업의 변천	11
4.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방법과 특성	14
1) 형태	15
2) 색채	15
3) 질감	17
4) 디테일링	17
III. 오브제의 일반적 고찰	20
1. 오브제의 개념	20
2. 오브제의 등장 배경	23
IV.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 분석	25
2.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조형적 오브제 양식	26

3.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분석	27
1) 종이(색종이 비닐소재, 신문지 인쇄물)	28
2) 섬유	28
3) 새의 깃털	29
4) 비즈, 시퀀 (인조 보석, 스팅글, 스톤 등)	30
5) 금속류	30
6) 기타	31
V. 작품 제작	39
1. 작품 제작 의도	39
2. 작품 제시	40
VI. 결 론	54

참 고 문 헌

ABSTRACT

그림 목 차

그림1 점과 색에 의한 표현, Hera 화장품 광고, 「Elle Korea」, 2002, 6, p.32	19
그림2 선에 의한 표현, 「Vogue Korea」, 2002, 2, p.59	19
그림3 색과 선에 의한 표현, 「Vogue Korea」, 2002, 2, p.54	19
그림4 면과 색에 의한 표현, 스위치 광고, 「Elle Korea」, 2002, 7.	19
그림5 거친 질감에 의한 표현, 한국 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1.	19
그림6 글리터한 질감에 의한 표현, 「Farbe」, 2002, 11.	19
그림7 마르셀 뒤샹 (Duchamp, Marcel) <샘>	22
그림8 프란시스 피카비아 (Francis Picabia) <기계는 맹렬히 회전함>	22
그림9 종이를 응용한 오브제, Christian Dior, '2002 s/s, 「Elle Korea」, 2002, 1.	33
그림10 종이를 이용한 오브제, Christian Dior, '2002 s/s, 「Gap Press」, Vol.40	33
그림11 신문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1	33
그림12 나비 모양의 오브제, Christian Dior, '2003 S/S, 「Gap Press」, Vol.9.	33
그림13 레이스를 이용한 오브제, Christian Dior, '2003 S/S, 「Beauty Collection」, p.136. ..	34
그림14 레이스를 이용한 오브제, 「Haper's Bazaar」, 2003, 1.	34
그림15 망사천을 이용한 오브제, Pierre Balmain, '2003 S/S, Paris Haute Couture. ..	34
그림16 나뭇잎, 줄기, 나비등 자연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1, p.143.	34
그림17 깃털을 이용한 오브제, 한국 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3.	35
그림18 '2002 s/s, 「Gap Press」, Vol.40	35
그림19 한국 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2.	35
그림20 「Haper's Bazaar」, 2002, 9, p.231.	35
그림21 John Galliano, 「Haper's Bazaar」, 2002, 9, p.392.	35

그림22 「Farbe」, 2002, 11.	35
그림23 비즈를 이용한 오브제, John Galliano, '20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6
그림24 시퀀을 응용한 오브제, Christian Dior, 「Elle Korea」, 2002, 9.	36
그림25 비즈를 이용한 오브제, Christian Dior, '2003 S/S, 「Beauty Collection」, Vol.1. ...	36
그림26 스톤을 이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6.	36
그림27 「Vogue Korea」, 2002, 1.	36
그림28 스팅글을 응용한 오브제, 「Farbe」, 2003.1.	36
그림29 오즈세컨 광고, 「Haper's Bazaar」, 2002, 9.	37
그림30 옷핀을 이용한 오브제,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37
그림31 알루미늄 금속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9	37
그림32 클립을 이용한 오브제	37
그림33 금속 수세미를 이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9.	37
그림34 스트로를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5	38
그림35 거즈와 캔 뚜껑을 이용한 오브제	38
그림36 지퍼를 이용한 오브제, 「Farbe」, 2003.2	38
그림37 나사 못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1, 10.	38
그림38 망사를 이용한 오브제, 「Haper's Bazaar」, 2002, 9.	38
그림39 화장품을 이용한 오브제 「Vougue Korea」, 2002, 3.	38

작 품 목 차

작품1 <기계부속을 이용한 오브제 표현>	41
작품2 <플라스틱과 전기선을 이용한 오브제 표현>	43
작품3 <PG1.25와 전선을 이용한 오브제>	45
작품4 <1813 스위치단자를 이용한 오브제>	47
작품5 <5 ϕ 를 이용한 오브제>	49
작품6 <동축코넥터를 이용한 오브제>	51
작품7 <와샤와 250황TR을 이용한 오브제>	5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서 오늘날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미적 본능중 하나인 아트 메이크업은 신체 보호, 종교, 욕구충족,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와서는 토탈 패션의 한 분야로 혹은 아트 메이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세기말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원성과 불확실성의 가치는 문화 전반에 걸쳐 표현의 무제한성을 허용하고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¹⁾.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과 가장 밀착된 예술의 한 형태이며 예술과 일상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오브제 미술과의 접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아트 메이크업에 오브제를 도입하여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의 영역을 넓혀 아트 메이크업의 예술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은 재료의 제한을 없앴으며 이러한 새 재료에 적합한 기법이 여러 형식으로 등장하여 형태의 다양화를 이루었다.

본 논문은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을 새로운 독자적인 예술로 영역을 넓혀준 오브제 개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가 얼마나 다양하게 현대인의 미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다양한 소재들을 분석하고 현대산업문명사회에서 생산되는 컴퓨터 부품이나 기계부속과 같은 공업제품을 소재로 작품을

1)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 3.

제작함으로써 소재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일상의 비예술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디자인의 무한함을 연구하여 아트 메이크업이 단순한 화장의 의미에서 벗어나 예술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트메이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형예술 분야로써 아트 메이크업을 학문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둔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의 고찰을 통해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브제의 소재를 섬유, 종이, 시퀀, 비쥬, 깃털, 금속류,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사진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고찰을 하여 오브제의 소재를 이용하여 표현한 아트메이크업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오브제는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소재 다양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작품은 산업사회에서 생산되어지는 기계부속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아트 메이크업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본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언급했고 2장은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써 아트메이크업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이 표현 방법은 색채, 질감, 형태로 구분이 되며 그 기본 형식에 디테일이라는 오브제적 형식을 넣음으로써 기존이 형식과 다른 표현 방법이 있음을 언급했다. 제3장은 현대미술에서의 오브제의 개념과 전개과정에 대해 언급했고 현대 회화에 나타난 오브제의 미술적 고찰을 하였다.

제4장은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조형적 오브제의 양식을 파악하였고 해외 컬렉션지, 패션 관련 서적, 메이크업 관련 서적, 국내외 패션 전문지 등을 참

고하여 거기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를 분석하고 오브제의 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은 현대사회에서 생산되어지는 기계부품과 같은 공업제품을 소재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제6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얻어진 결론을 언급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논문, 미술 평론지를 통해 오브제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찰했고 이것을 토대로 문헌자료를 통해 메이크업과 오브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오브제 메이크업 사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메이크업의 미에 새로운 미적 표현영역의 가능성을 제시한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아트 메이크업의 일반적 고찰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아트 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마치 화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의 얼굴과 몸에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을 가지고 회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형태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표현 방법은 얼굴 혹은 신체를 캔버스로 생각하고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트 메이크업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써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작품의도에 따른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체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²⁾ 프랑스나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광고매체 등 미디어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메이크업의 일환으로 정착하고 있다. 입체적인 얼굴형태와 굴곡이 있는 피부 근육은 작품을 구상하여 표현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얼굴의 형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얼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표현에 있어 특히 자연은 모든 예술적 창조행위와 상상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즉 메이크업 디자인을 위하여 물고기, 새, 곤충, 동물 등은 디자인의 형태, 문양, 소재 및 영감을 더해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³⁾ 먼저 관찰을 하고 얻

2) 이화순 외 6인, 「The Art of Makeup」 형설출판사, 2003, p.8.

3) 이화순 외 6인, 위의 책, p. 9.

어진 직관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다양한 문양이나 추상적 기법, 사실적 묘사, 직물의 문양이나 의상 등으로 표현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상과 헤어, 악세서리와 같은 소품의 사용은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돋보이게 한다. 아트 메이크업은 영화, TV, 연극, 광고, 이벤트, 패션쇼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페이스 페인팅, 바디 페인팅, 문신, 신체 장식등 각자의 상상력이나 기술력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작품만으로도 예술적인 의미가 있지만 연출, 춤, 음악, 조명, 소품, 특수효과를 넣어 공연되는 감성적인 문화로 표출되는 종합예술로 생활문화 저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신체장식 행위는 오늘날의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토대가 되었다. 원시 바디 페인팅은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으나 1966년 아트 디렉터인 리트(Rit)에 의해 현대적 아트의 한 장르로 표현되기 시작했다.⁴⁾ 아티스트에 따라 아트 메이크업, 환타지 메이크업, 아트 페인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데, 메이크업을 창의적으로 예술적인 조형예술로 표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아트 메이크업으로 말하고자 한다.

2. 아트메이크업의 기원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의 시작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 던 간에 시대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본능으로 비롯되었다고 본다. 물론 원시시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없이 단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행해지는 본능적인 일상의 것들이었다.

4) 진현용, 최성민, 「The Body Art Vol.」, 도도컴 편집부, 2002. p16..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고 또 일상에 그것들이 이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수렵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묶어서 편리함을 충족시켰거나 풍요와 내세의 영원 불멸을 위한 기원으로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어 표현하였다. 일상적으로 행해진 행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다듬어 지고 자연을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디자인하되, 공예화되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또 인류의 화장품 도구의 사용이 전해져 왔는지 모르지만, 습관적이고 본능에 의해 역사가 문헌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사용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추운 지방에서는 동물의 기름을 손에 발라 피부가 갈라지는 것을 보호하였으며 뜨거운 사막지역에서는 가발을 모자처럼 사용하여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식이나 전투 시에 흙이나 재, 돌가루 등에 기름을 섞어 몸에 발랐는데 이는 신에게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고 전투 시에 타인보다 힘의 우월감을 갖기 위한 화장의 일종이었다. 장신구를 이용하여 머리장식과 다양한 문양의 머리 빗이나 토기, 금, 은 등의 장식들이 사용되어져 거기에는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다분히 깔려 있다.⁵⁾ 신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려는 신의 숭배 의식과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 숭배 사상이나 미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빙하기 약 4만년 전 스페인의 알타마라(구석기 시대)의 동굴에 그려진 벽화 속의 인물에서 얼굴이나 손에 붉은 색이 칠해져 있으며, 붉은 돌가루를 뺏아 놓은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같은 부족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종족임을 표시하기 위한 의식으로 식물의 즙이나 빨강, 노랑, 색 등의 흙과 철 산화물, 불에 태운 재 등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주국의 주나라 등지에서도 향장품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⁶⁾

5) 김춘록,,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2002, p.11.

6) 김춘록, 위의 책, p. 12.

문헌이나 왕의 분묘에서 발굴된 화장도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근대에 이르는 동안에 미용문화는 일부 사회의 왕족이나 귀족, 지배계층이나 부유한 특권계층에서만 향유되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장신구 사용이나 화장문화가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미에 대한 의사표현은 태고로부터 인류문화가 진보됨에 따라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의 미적 본능을 충족시켜 왔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나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사회 현상이나, 종교의 영향은 물론이고 과학 기술과 산업화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럼 인류의 미의식 원류는 어디서 내재되어 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몇 가지 학설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다.

1) 본태설

식욕과 성욕이 자연적인 본능이듯이 아름다움을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본능이다. 인간은 태고 적부터 자신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려하고 추한 부분이나 일부의 약점을 고치거나 감추려고 노력하여 왔는데 이것을 화장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미용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북부지방에서 출토된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이라 추정되는 빌렌도르프

여인의 나체 조상을 제시한다. 이 여인상은 가슴이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하며 둔부가 발달해 있는 모습인데 원시인들도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 타고난 본능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⁸⁾

2) 장식설

7) 김춘록, 앞의 책, p11

8) 김춘록, 앞의 책, pp. 13-14.

인간이 아직 의복을 입기 전의 원시시대의 계급, 성별,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피부나 얼굴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문신을 새겼다. 이것이 미용을 위한 화장으로 발전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남녀나 계급과 같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화장이 시작되었다는 견해이다. 1991년 알프스 빙하 소에서 석기 시대의 사람에게서 문신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문신의 기원은 3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특정 종족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용맹을 과시하기 위하여 몸에 문신을 새겼다. 지금도 미개사회에서는 일부 인디언이나 추장이 자신의 권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장신구와 함께 몸에 색깔을 칠하여 차별성을 강조하고, 종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치장을 하고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선사시대부터 벌써 화장법이 고안되어 발전되면서 향장품을 자급자족하였다. 여기에 문신과 향장품을 사용하는 것이며 머리빗과 머리 장식이 사용되어 졌다.⁹⁾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신분에 따라 옷과 보자, 장신구가 달랐던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치장이 계속되는 동안 그것이 발전하여 아름다움을 가꾸는 수단으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고대의 통치자, 용맹스러운 무사 등 상류 사회인들이 요란하게 멋을 낸 것처럼 현대에 와서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요란한 치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아폴론이 짝사랑한 여인이 변해버린 월계수 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무사들에게 씌어 주어 용맹을 칭송했다는 신화가 있다.¹⁰⁾ 이러한 것을 볼 때 대중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경외함을 갖기 위해 장식하였다는 설이다.

3) 종교설

신체를 장식하는데도 종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신체의 안녕을 위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삼한 시대의 바닷가 사람들이 바다와 강에 들어가기 전에 쪽으로 손과 발에 물감을

9) 이귀영, 20세기 미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미용 학회지, 1997, p. 20.

10) 김춘득, 앞의 책, pp. 20-21.

들었고 산촌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손뚝과 발뚝에 붉은 칠을 한 기록이 전해진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제사지낼 때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향나무즙을 몸에 바르고 재단에 나아가 향나무를 태웠는데 향나무즙을 몸에 바르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목욕 재계한다는 의미이다.¹¹⁾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향을 태움으로써 신을 숭배하며 자신들이 기원하는 바를 신이 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술적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향나무의 가지를 사르고 향나무 즙으로 만든 향수나 향료를 미화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종교설도 있다.

인류문화의 재앙을 없애고 복을 구원하는 축술로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신앙이 모태였다. 나약한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초자연적인 힘의 절대자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축원하였는데 일상과는 다른 장식을 하였다. 이는 권력이나 명예, 부와 의례적인 상징이 절대자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여겼던 인류가 가진 불안감의 해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신체보호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위협에서 보호하고 위장하기 위한 치장이 신체보호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원시시대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여 적을 공포감에 몰아 넣어 위협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귀신이나 마귀를 쫓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색칠을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혼례 때부터 신부가 연지, 곤지를 찍는 것은 주색 축귀의 속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이에 연유한다.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 빛과 곤충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 주위에 푸른색으로 질게 감싸듯이 그려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아이새도우 화장으로 발전되었다는 설이다.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도 역시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멋을 내기 위한 패션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복식과 화장은 일맥 상

11) 김춘득, 앞의 책, p. 20.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는 다른 지구상의 다른 강대한 동물과 비교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변화하여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신에 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이성유인설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미용술이 이성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됐다는 학설이다. 실제 인간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성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싫어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인류가 문화를 형성하면서 식생활문화와 성욕구문화가 동시에 발전되었는데 이와 함께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문화도 같이 발전하면서 성문화와 화장문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다. 움직이는 육체를 청결히 하기 위해 매일 정돈해야하는 청결문화나 헤어스타일은 유형이면서도 무형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엿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분위기를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성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들은 저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했고 이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하였다.¹²⁾ 여러 신화에 나타나 있듯이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한다는 에로스의 이성유인설은 자신의 신체에 장식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기를 바랐다.

이상의 다섯 가지 학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인간이 태초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화장을 시작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다만 원시 시대는 미,추의 개념이 오늘날과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개념의 미의식이 언제부터 화장에 반영되었느냐 하는 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척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습이나 유행에 의해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준을 가늠하기도 한다.

12) 그리이스, 로마 신화, 토마스 불핀치 작, 이재철 옮김, 교육문화 연구회, 1995. p. 78.

3. 아트메이크업의 변천

1) 원시시대의 아트메이크업

색을 사용하기 시작한 기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색을 마술에 유혹되어 자신 나름대로 변형시키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원시적인 본능을 따랐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도울의 벽화와 같은 붉은 황토와 황토무덤 도구 위에 놓여 있는 유골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페인팅 된 조각상은 구석기 시대 매장 터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런 매장의식¹³⁾은 아트 메이크업이 생활사에서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풍습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색칠된 마스크나 신체예술의 변형효과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애니미즘적인 종교의 무당을 없애고 그들을 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 주고 초기 인간에 대한 새로움, 신비롭고 종교적인 경험의 길을 열어 주었다. 원시시대의 아트 메이크업은 그것이 외모로 가꾸는데 쓰였던지 다른 부족과의 구별을 위해서든지 또 종 개의 매우 발달된 이 시대의 예술적 표현의 본보기이며 전 세계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2) 고대의 아트 메이크업

이 시대의 아트 메이크업은 다른 예술적 표현들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였던 것에 반해 종교나 사회적, 정치적 개념을 가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분리 시켜서는 안 되며 ‘타고난 상상력의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때 사용되어진 색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나오며 신과 성직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조직되고 표현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은 아트 메이크업을 통해 현세와 내세가 서로 왕래한다고 믿었고 모든 현상(새, 동물, 돌, 하늘, 땅 등)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열려 있다고 믿었다.

13) 김영희 외 6인, 토탈 메이크업, 정문각, 2001. pp. 134-135.

춤, 노래, 육체적 장식과 색칠 하나가 곧, 의학이며 수호, 영혼, 은총을 얻는 행위이자 믿음이다. 특히 사냥은 의학의 필수이며 성공의 여부도 거기에 달려 있다.¹⁴⁾

동물의 부속물로 장식하고 동물의 특징을 흉내내는 춤도 더 많은 수호영혼과 접촉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고대 아트 메이크업 중 문명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했으며, 예술적 가치가 가장 컸던 시대는 고대 이집트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집트인들의 대부분의 화장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향유와 화장품이 풍부히 사용되었던 것은 고대 이집트의 묘에서 발견된 향유병에서 증명되었는데¹⁵⁾ 파우더나 색조 화장수가 발견되었다. 이집트 여인들은 눈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 여겨 검은 화장으로 눈을 크게 만들고 강조하였으며 눈과 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먹을 사용했으며 초록이나 하늘색 아이섀도우를 사용했다.¹⁶⁾

이집트인들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시나이 반도에서 나는 공작석으로 녹색의 화장료로 눈 화장을 했다.¹⁷⁾ 또한 색조화장으로 고운 가루의 붉은 진흙을 입술과 연지로 사용했는데 헤나라는 식물성 염료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연한 장미빛을 내게 하여 혈색을 강조하게 하였는데 이용하였다. 하얀 피부를 표현하는데 백납을 사용하였다. 이집트 메이크업은 스케일이 크고, 과장된 방법을 사용한 점도 있지만 눈의 라인을 강조하고, 섀도우의 사용과 입술을 붉게 사용한 점이 현대의 메이크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 아트메이크업

근대의 메이크업은 공동캠프에서 특히 춤의식을 행했는데 각 종족은 자신만의 춤과 노래 그리고 바디페인팅의 특징을 가지고 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부를 이용하는데 나무 조각들처럼 피부의 표피를 자르기도 하고 조각가가

14) 김영희 외 6인, 앞의 책, p37

15) 김춘득, 앞의 책, p34

16)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m, pp.13-18

17) 유송옥, 고대 이집트 패션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 논문, 1972, p262.

작품을 깎아 내는 것처럼 피부의 본성을 바꾸는 것으로 예술을 표현한다. 그들의 얼굴과 몸이 예술을 나타내는 캔버스인 것이다. 장식된 피부는 몸을 생동감 있는 조각품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끌어 올려놓는다. 그들이 표현하는 육체의 의식적인 디자인은 빛이 형상화된 자연스러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데 인간다운 문화의 표현으로써 확실히 특색을 이룬다. 이 예술의 규칙은 시대나 지역의 특성에 의해 바뀌지거나 보태지기도 한다.

지역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경우 그들이 표현하는 육체적인 의식 디자인은 비정형화 된 자연스러움과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 인간다운 문화의 표현으로써 확실히 특색을 이룬다. 고대의 아프리카인들은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또는 식물성 색소 등으로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위장함으로써 전쟁 또는 승리를 피하고자 메이크업이 행해졌다고 본다.¹⁸⁾

남아메리카의 주민들은 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춤추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검고 붉고 흰색으로 색칠하며 어떤 이들은 흰 깃털로 몸을 덮듯이 장식한다. 군인의 의상을 직접 자신의 몸에 착색하기도 하였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옷을 자기 피부에 페인팅 하는 것이 순전히 모방하고자하는 욕구와 호기심에 의하여 고무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페인팅은 신화적이었다.¹⁹⁾

아시아 중 일본은 종교적 바디페인팅을 짐작해 낼 수 있는 진흙 상들이 정교한 줄무늬와 패턴을 지닌 채 발견되고 중요한 족장의 무덤에서 발견된 50-100 cm 높이의 빨간색으로 페인팅 된 점토상을 통해 그들의 몸이 질서 정연하고 조화롭게 장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18) 한국방송위원회 편, 방송문화, 1988, p.43.

19) 노영아,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p. 23-24.

20) 노영아, 앞의 논문, p. 29.

4) 현대의 아트 메이크업

장식된 피부는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의 아트 메이크업이나 얼굴화장 같은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역사적인 기원을 추정해 낼 수 없다. 설령 고대의 식이 페이스 페인팅을 한 남자 배우의 경우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현대에는 피부 장식을 통해 문명의 무의식적인 창조성과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지거나 문신된 신체 또는 화장은 얼굴이 순수하게 예술적인 충동을 위한 표현이지 더이상 전통에 대한 본능적인 교제나 의식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을 다르게 보이고 싶거나 모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아트 메이크업에서 피부는 경이로움을 계획하려는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 아트 메이크업은 다양한 형식으로 그 존재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키려 한다. 이렇듯 아트 메이크업은 원시 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신체 예술의 형태로 이루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즉흥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다양화되어 있다. 이제 아트 메이크업은 신체예술을 새로운 순수예술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예술분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4.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방법과 특성

메이크업이 얼굴 표면에 행해지는 조형예술의 표현이라고 할 때, 그 표현 방법을 형태(Shape), 색채, 질감(Texture), 디테일링(Detail)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목구비를 아름답게 돋보이고자 하는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양식을 파괴하여 좌우대칭이나 균형미, 통일감 등을 무시한 비일상적인 패턴이나 장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색채의 제한성을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현란하고 기발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극대로 자제하여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질감을 과장하거나 얼굴 피부와는 전혀 동떨어진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1) 형태

메이크업은 인간의 얼굴 표면 위에 예술 조형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예술이다.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표현 유형을 조형요소 중 형태의 측면에서 이루는 점, 선, 면으로 나누어 논할 수 있다. 점, 선, 면은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점은 크기와 명암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점을 줄지어 배치하면 울동감이 생겨나며 어떤 방향감이 암시되게 된다. 점은 크기나 형태 이외에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위해서 여러가지 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선은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폭, 굵기가 다양하며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직선은 경직되고 단순하며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사선은 동적이고 불안하며 곡선은 유연하고 복잡하며 동적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얼굴에서 선을 이루는 것에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외곽선 등으로 아이섀도우나 블러셔를 선적인 터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얼굴에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낙서하듯이 그려 넣기도 한다. 이러한 직선, 곡선 등의 선의 형태는 종류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좌우되어 진다.

전형적인 메이크업의 형태에서는 얼굴의 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써 아름다운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¹⁾

선이 모여 면으로써 표현될 때는 면의 크기에 따라 돌출과 진퇴의 느낌, 입체적인 느낌이 가능하다. 면이 더 클 경우에는 진출의 느낌이고 면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후퇴의 느낌이 강하다.

21)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35.

2) 색채

눈은 물체의 표면으로 발산되는 시각적인 빛의 파장으로 색을 인식한다. 색은 물리적인 사물의 외곽을 변화하는 착시현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분위기나 감각이 표현을 위해 사용한다. 일반 메이크업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그러한 제한적인 색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하여 표현하는데 이목구비의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많은 색상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색상을 제한하는 등의 기발한 색채 사용으로 시각 효과를 줄 수 있다.

조형적인 디자인에 있어 형태와 색채가 가치는 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형과 색의 표현은 상호 조화되어야 한다.²²⁾ 원이란 평면에서 주어진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이동하는 점의 궤적이다. 회화에서는 주관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주가 넓다.

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에서는 단순히 색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일정한 마법이 색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였다. 인디언에게 있어서 빨강은 낮을 상징하고, 검정은 언제나 밤을 상징하였다. 빨강, 노랑, 검정은 남성적이며, 흰색, 파랑, 녹색은 여성적인 색이다.

이집트에서는 태양 그 자체가 라와 오시리스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황금색, 노란색, 혹은 붉은색이었다. 이집트 건물은 대부분이 나일강변의 초원과 같은 초록색 바닥과 하늘색 같은 파란색 천장으로 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란색이나 황금색은 아테네의 여신을 가리켰다. 여신의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였다. 빨간 양귀비는 수확의 여신인 세레스에게 바쳐졌다. 주신인 디오니소스는 붉은 얼굴을 하고 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느님의 색은 청색이었다. 중국에서는 송 왕조(서기 960-1127)의 황실 색상은 갈색, 명 왕조(1368-1644)는 녹색이었다. 로마에서는 목성을 상징하는 자주색의 옷을 황제가 입었다.

22) 이화순, 김자애, 채송화, 위의 책, p31.

인도에서는 독특한 네 개의 신분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이 있었다. 브라만은 사제의 노릇을 했고 그들은 신성한 계급으로 흰색이었다. 크샤트리아는 군인계급으로 빨간색이었다.

바이샤는 상인계급으로 노란색이었으며, 수드라는 노예계급으로 검정색으로 나타냈다.

3) 질감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서 질감 표현은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과 우리의 대뇌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시각적 질감이 포함하는 것으로써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질감의 근원은 자연의 질감에 근거한다. 부드럽다, 거칠다, 갈라진다, 말랑말랑하다, 딱딱하다, 글로시하다, 미끈미끈하다, 흠이 묻은 효과, 금속 질감, 다양한 직물의 효과, 촉촉한 느낌, 균열감과 같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또한 색이나 명암효과, 표면지문등을 통해 촉각감을 느낄 수 있다. 아트 메이크업의 질감표현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따라 질감의 효과가 달라진다. 인체에 페인팅을 했을 때 붓을 사용했을 때와 스펀지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다. 일반 스펀지, 블랙 스펀지, 라텍스 스펀지 등 스펀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망사나 실뭉치, 머리카락, 철사, 호일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 같은 색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보통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제품은 액상, 크림, 파우더 타입 등이 기본이고 질감을 표현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소재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매트한, 글로시한, 필감이 있는 등의 광택의 유무에 따른 것만으로 표현된다.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질감은 여러 가지 느낌을 달리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4) 디테일링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서 디테일로는 피부 위에 프린트를 한다거나 이질적인 소재를 붙이거나 링을 피어싱을 하는 장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표현 기법이 본 논문의 오브제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의 요소가 드물지만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조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감하고 실험적인 요소를 강하게 띄기 때문에 아트 메이크업에서도 디테일의 요소는 다른 조형적 요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하고 비일상적인 독특한 소재를 붙이거나 덧씌움으로써 부조화적이며,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지나침과 과장성을 느낄 수 있다.²³⁾

23) 김은영, 앞의 논문, p55.



[그림1] 점과 색에 의한 표현,
Elle Korea 2002. July p32



[그림2] 선에 의한 표현,
Vogue Korea 2002. 2. p32



[그림3] Vogue Korea 2002. 2. p54



[그림4] 면과 색에 의한 표현,
Elle Korea 2002. 7.



[그림5] 거친 질감에 의한 표현
Makeup Art 2003. 1



[그림6] 질감에 의한 표현,
Farbe 2002. 11

Ⅲ. 오브제의 일반적 고찰

1. 오브제의 개념

오늘날 오브제(Object)의 의미와 그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오브제의 분명한 개념의 규정이 어렵다.

오브제란 용어는 본래 미술에서 쓰이는 말이며 라틴어로 'Objectum'에서 유래²⁴⁾된 것으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의미로 객체 또는 대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브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과 주체가 안주할 수 있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인 것이다.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는 우연적 혹은 필연적 효과에 의해서 주관의 심부에 작용하여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그 자체가 일상의 가치로부터 이탈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물체와 이미지 사이의 인습적인 관계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물리적 상태로 환원시킴으로써 이쯤지어 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²⁵⁾ 그리고 그 물체 안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예술 작품으로 전환되어 지는 경우 이 물체를 오브제라 한다.

고대의 인간들이 미적 대상으로 취급해 온 것은 자연에서 비롯된 물질들의 한 단편이었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미적 대상이란 생활이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을 띤 것들이었다.

그러나 원시인들의 주물을 오브제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사물에 집착하는 물질 숭배적 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표현의 주체는 작가에 있으므로, 어떤 물체를 선택한 작가에 의해 그 물체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버리고 독자적인 새로운 의미로 탄생한다.

24) 박덕흠, 「현대 미술의 기초 개념」, (서울: 재원), 1990, p.3.

25) 조향, 「초현실주의 사상과 枝功 · 4」, (서울:정민사), 1985, p.3

이와 같이 오브제의 개념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체뿐만이 아니라 위의 인식과 행위의 대상은 물론, 사회의 모든 그룹이나 풍습 등의 관념적인 대상까지도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한 단편으로써의 사물(The thing)과 인간에 의해 의미화 된 대상물(The object)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브제란 보는 사람, 또는 대부분 그것을 체험하는 자의 잠재의식에 강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물체로 인식된다. 그것은 갖가지의 소재를 사용하여 작가가 조형하는 「물체」를 뜻하는 것이다.

평면상에 특별한 형상을 추구하는 회화나 가소성이 풍부한 소재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상 내지 조각과 다른 것은 우선 형상이라기 보다는 물체이며, 특정한 심미관에 의거하여 파내거나 주물러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꺼내진 것²⁶⁾을 말한다.

이러한 물체가 'The thing'에서부터 분명히 구별되게 된 계기는 콜라주의 호시인 입체파 브라크에 의해서이다. 그가 화면에 부착한 벽지나 담배갑은 그 자체가 아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사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결국 오브제란, 물질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허무함과 무효용성에 반발하여 실제의 대상을 끌어들이으로써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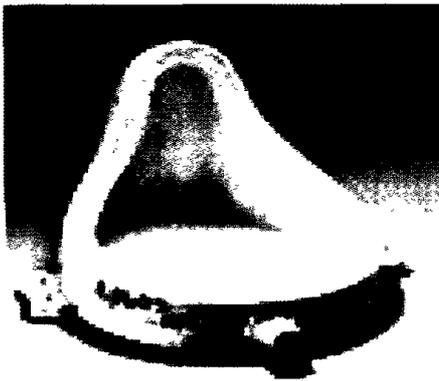
다다이즘의 오브제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예술형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반예술에서 태동하게 되었다. 다다이즘은 전통적인 문명을 부정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회적, 도덕적 속박에서 정신을 해방, 개인의 근원적 욕구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 이 운동의 근본정신이였다.²⁷⁾ 외부에서 벌어진 이미지 즉, 폐품, 신문, 잡지의 인쇄물과 사진등, 작가 창조한 이미지가 아닌 비개성적인 기성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는 다다가 표명했던 부정적 행위와 모순을 극복하고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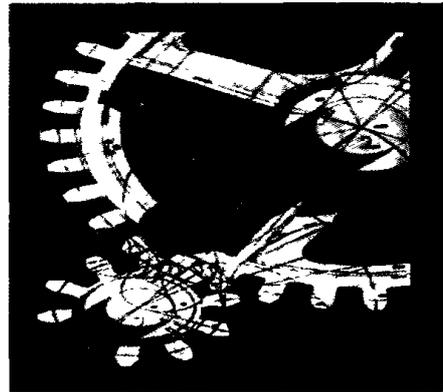
26) 이호철, 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아쌍블라주의 제양상과 그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p.38.

27) 현대미술용어사전, 계간미술편, 중앙일보사, 1981, p.35.

대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의 전통을 확립했다. 초현실주의의 오브제는 현실과 비현실, 실제와 비실제, 의식과 무의식, 기괴함과 아름다움 등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효과에 의해 보는 사람의 연상작용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물체와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 시각하에서 물체를 재발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림7>마르셀 뒤샹 (Duchamp, Marcel), <샘>



<그림8> 프란시스 피카비아 (Francis Picabia), < 기계는 맹렬히 회전함>

네오다다는 다다의 운동을 이어받아 주로 과거에서 사용했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경제성장과 대중사회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품이나 폐품과 같은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모아 작품을 제작하는 아쌘블라쥬 (Assemblage) 계열의 폐품미학을 창조했다.

팝아트의 오브제는 대중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파생된 일용품이나 생활 장면을 반영하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퍼뜨리고' 있는 현대 소비사회가 예술 분야를 침략한 것을 나타낸다. 기성품이 장소를 연출시킴으로써 존재론적인 오브제로 둔갑시킨 것이라면, 팝아트 아티스트들은 장소가 아니라 기성품 자체를 변장시킴으로써 상징적 오브제로써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해 새로운 미를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키네틱 아트의 오브제는 빛, 음, 색의 여러 가지 매체의 집합으로서의 오브제의 개념을 수용한다.

미니멀의 오브제는 물체의 내적구조에 관심을 두고 행위보다는 그대로의 감성과 근원적인 의미를 찾고 그 결과로 최소의 형태를 지닌 오브제를 낳게 된다고 정의했다.

개념미술의 오브제는 어떤 기호나 지시하는 물체의 상징으로 언어와 같은 것이다. 단지 그것은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꾸밈없이 만들어 진 것이다.

2. 오브제의 등장 배경

미술사에서 ‘오브제’ 라는 말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입체주의부터이다.²⁸⁾ 그러나 오브제는 사실 입체주의 이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나 이집트의 조각품에서부터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적인 그림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물론 이때는 오늘과 같은 의미가 아닌 대상, 객체로서의 오브제이다.

오브제란 용어가 처음으로 미술 용어의 개념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36년 파리에서 5월 22일 개최된 ‘초현실주의자의 오브제’ 전에서였다.²⁹⁾ 그렇지만 이미 오브제는 19세기 말 폴 세잔느의 회화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복수 시점을 화면에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재현 방식인 고정적인 시점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다양함을 추구하는 계기를 이루었다.³⁰⁾ 따라서 세잔느는 앞으로 입체파들이 행할 사물들의 분해와 추상회화로 연결될 수 있는 사물들이 계기를 위한 길을 열어 주게 된 것이다. 입체주의자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지속되어 왔던 단일시점을 포기하고 다시점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대상은 해체되어 화면 위에 나타나고, 대상을 다시 점화해서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사물의 실제감을 현저히 약화시켜 현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문제

28) 장남경, 오브제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3.

29) 이정희, 오브제 표현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5.

30)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109.

는 어떻게 하면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갖느냐의 문제였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빠삐에 콜레(Papier coll)이다.

최초의 빠삐에 콜레 기법은 피카소의 '등나무 없는 정물'에서 이다. 여기서 그는 레몬, 유리, 유리잔, 파이프, 신문 등이 나오는 정물화에 등나무 의자가 인쇄된 천조각을 부착했다. 그리고 다시 그림 전체를 밧줄로 테두리 쳐졌는데, 이러한 기법은 등나무 의자의 존재를 제시하여 준 것이다. 그후 여러 사람들이 피카소와 같은 시도를 했다. 이것이 서양 미술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현대적인 오브제지만, 이 오브제는 평면적인 것에 머물렀으며 조형적인 요소로 물감과 같이 취급되어 졌다. 그러나 이는 꼭 물감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법이 타당치 않음을 깨닫게 했고, 종래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오브제의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³¹⁾ 이와 같이 오브제의 발생은 '보았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현대미술에 있어 오브제의 등장은 작가들이 몇 세기 동안에 걸쳐 사용해 오던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가들은 캔버스에 집착해 왔던 주관적인 관념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였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물의 존재로 관심을 바꾸어 사물에 대한 선택과 인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31) 김선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7.

32) 이일, 「현대미술의 궤적」,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4, p.32.

IV.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 분석

1. 아트 메이크업과 오브제와의 관계

현대 미술에서 오브제란 사람과 물체가 서로 소통하는 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새로운 조형의 개념으로 탄생되었다. 이것은 현대 미술의 조형 영역은 물론 그 사상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³³⁾

이러한 오브제의 개념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자유로운 조형예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응용되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과 재료 등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에서 그 방법은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⁴⁾

아름다움이란 주로 여성이 추구해야 하는 기치이자 의무로서 중요시되면서 메이크업도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미를 위한 여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메이크업은 더 이상 획일적인 여성미가 아닌 다양한 미적 가치의 표출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새롭고 전위적인 표현 형태와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아트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근본 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만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맞추어 기괴하거나 비정상적인, 과장성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인체 전체를 표현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가장 실험적이고 예술성을 표현하기 좋은 것이 오브제의

33) 김선아, 앞의 논문, p. 17.

34)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표현이다. 이질적인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확대성을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메이크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패턴이나 장식을 담은 현대 메이크업의 표현의 무제한성은 추를 미의 형식으로 끌어들이면서 불완전,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이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격상시켰으며³⁵⁾, 이러한 실험성과, 전위성이 보여 주는 충격효과는 오브제의 특성과 일치한다. 근본적으로 미적 부적절성의 개념을 함축한 중요한 창조전략으로써, 모조품, 기성품, 그리고 비예술적인 일상적인 소재인 오브제를 직접 사용하게 된다.

화려한 깃털 장식이나 모조 보석으로 만든 네클리스(necklace)와 함께 눈썹에 붙인 스팅글은 질은 광채와 색채변화 때문에 화려함을 주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유아적인 웃음을 주기도 한다.

메이크업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레이스를 도입함으로써 메이크업 대신 문신 같은 프린트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이 오브제 개념은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어져 시대의 사회적 욕구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변이 또는 발전되었으며, 오브제의 조형적 영역은 물론 디자인 개발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2.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조형적 오브제 양식

우리의 주변은 보이지 않는 공기 속으로부터 수많은 사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매일 매일 생각하면서 부딪히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범람한 사물들은 그것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어떤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물에 대한 상징성이란 불확실한 것이며, 그 사물의 주변 환경이나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³⁶⁾

35) 김은영, 앞의 책, p.81.

36) 장남경, 앞의 논문, p. 27.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서 오브제의 개념은 풍부한 표현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형성을 가미해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킨다.

조형이란 형태가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³⁷⁾으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조형적 가치는 자체의 개성이 강조되지 않고 물감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단독으로는 완벽한 독립성을 지니지 못했다. 단지 조형적인 구성효과만을 얻고 있는 곳으로 뼈빠에 풀레, 풀라쥬, 콤바인 페인팅, 등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조형적 오브제는 기존의 메이크업 제품만이 아니라 소재확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브제는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다면 어떠한 것도 소재로 가능하며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제한 없이 부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패션쇼에서 이러한 오브제를 이용한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존 갈리아노 패션쇼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얼굴에 레이스를 붙이거나 레터링을 하고, 눈썹에도 보통의 인조 속눈썹이 아닌 색다른 형태의 것을 장식하는 것도 있다.

눈앞머리에 스톤장식을 하기도 하고 얼굴에 비닐 소재를 붙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적 오브제는 메이크업 제품 이외에도 종이, 깃털, 레이스, 금속, 직물, 모조 보석류등 재료의 제한 없이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메이크업의 소재의 확장을 가지고 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소재에 맞게 다양한 기법이 발달되게 된다.

3.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분석

아트 메이크업은 이미지를 구체적인 그림보다 입체적인 인체의 윤곽을 살려, 소재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37)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8, p.1596.

구조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를 오브제화 한 사물로 변형하여 새롭게 형상화시킴으로써 그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표현방법이다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오브제는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사물을 제한없이 부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크 메이크업에 나타나 있는 오브제의 재료와 이것이 표현된 아트 메이크업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종이(색종이 비닐소재, 신문지 인쇄물)

종이는 두께, 질감, 색상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종이는 원시 미술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조형 언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로써 현대인간 생활의 필수품이었다.³⁸⁾

현대 미술에서 종이는 입체주의 뼈대에 콜레를 기점으로 회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이는 색상과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 붙임으로써 개성적인 표현이 가장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아트 메이크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종이의 소재로는 색종이, 비닐소재, 신문지 인쇄물, 레터링, 색상 테이프등이 있다.

그림9는 전체적으로 발그스레한 볼과 주근깨로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인데 눈에 종이를 오려 붙임으로써 플라주화 한 것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림10은 얼굴 전체에 색종이를 우스꽝스럽게 붙임으로써 인형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림11은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작품으로 신문지를 이용하여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했다.

그림12는 나비의 모양을 종이로 제작하여 눈에 붙임으로써 예술적인 느낌을 줄수 있다.

2) 섬유

섬유는 자유롭게 오리고 싸고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체의 특성 때

38) 김선아, 앞의 책, p.28.

문에 메이크업서도 오브제의 소재로 다양한 조형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촉각적인 자극을 주는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또 섬유로써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어질 소재는 레이스, 비닐소재, 등이다.

그림13은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에서 나온 작품으로 눈썹에 레이스 천을 붙이고 속눈썹을 검은색 블랙 레이스를 부착한 후 레드색의 깃털을 아이라인에 맞춰 붙임으로써 물랑루즈의 무화를 연상케 한다.

그림14는 눈썹을 그리는 대신에 레이스를 붙여 전체적 배경과 의상과의 밸런스를 맞춰 주고 매혹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15는 눈 주변에 투명한 원단에 반짝이는 것을 부착된 유를 부착함으로써 마치 환타지 페인팅을 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3) 새의 깃털

자연물의 도입은 자연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많은데, 털은 과거에서부터 인체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재로 현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초목재료로는 주로 풀이나 나무 줄기, 잎, 등이며, 이것 자체로 하나의 표현 소재로 채택되어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소재와 함께 합쳐서 작품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림16은 나무줄기, 꽃잎, 등을 이용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한편 가죽, 모피 깃털은 추위와 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인류가 역사와 같이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방한의 목적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림17-22는 패턴과 색상 등 다양한 깃털을 이용한 오브제의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비즈, 시퀀 (인조 보석, 스팅글, 스톤 등)

아트 메이크업에서 반짝이는 소재는 환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그러한 소재가 메이크업 제품류 중에 글리터란 것이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반짝이는 장신구와 차이는 입체감이 없다는 것이다. 반짝인다는 느낌은 같지만 조형성에서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23은 2003년 S/S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서 나온 작품으로 라메 소재의 사용은 반짝이고 이질적인 느낌을 주며 거기에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이마에 골드 비즈를 부착, 또 입술에 붉은 색 비즈를 부착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 극적으로 연출하였다.

그림24는 새퀀을 이용한 메이크업으로 입에서 목까지 새퀀을 붙임으로 마스크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25는 2003년 s/s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에 나오는 작품으로 굵은 비즈를 아치 모양으로 붙여 돌고래를 연상시킨다.

그림26은 눈에 스톤을 붙여 새도우와의 발란스를 맞춰 주었다.

그림27은 눈 주변에 금색의 스팅글을 붙이고 헤어와의 연결을 통해 메이크업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림28은 입술의 중심에 라인으로 스톤을 붙임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5) 금속류

금속은 보통 금붙이나 쇠붙이라고도 하며 특수한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는 잘 전도되며 퍼지고 늘어지는 성질이 풍부한 물질의 총칭이다.

금속은 비교적 무겁고 딱딱하여 차가운 느낌을 지니며, 합금의 성질이 있어 용도에 따라 가공할 수 있다. 예술가들 산업화의 부산물인 기계나 대량 생산품들을 일상 생활의 진보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예술의 표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29는 눈 주변에서 얼굴 아래로 떨어지는 옷핀을 사용하여 망사에 연결시켜 이미지를 표현한 광고의 아트메이크업이다. 옷핀류를 이용하는 것은 아트메이크업의 오브제에 전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30은 이마에 옷핀이 꽂혀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31은 눈썹을 그리는 대신 금속류를 붙임으로써 미래적이고 전위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32는 클립을 이용하여 얼굴전체에 떨어뜨리고 자물쇠로 잠겨 있는 느낌을 줌으로써 억압되어져 있고 음울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6) 기타

산업 사회가 대두되면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기성품이 아트 메이크업에 도입이 되었는데 이러한 기성품은 형태가 그대로 도입되기도 하고 부속품이나 변형되어 도입되기도 한다. 공업용품이나 일상용품 이외에도 캔 뚜껑, 수세미, 물 호수, 자크, 나사 못, 같은 소재들이 아트 메이크업에 이용되어져 왔다.

음식물도 접착이 되는 것에 한해 이용되어 질 수 있다. 과자류와 소스류가 적당하고 소스류는 색상의 다양하므로 물감의 대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림 33은 얼굴에 실버 메이크업을 하고 입술에는 스팅글을 붙여 주었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형태와 금속성의 텍스처를 가진 금속 수세미를 모아 만든 것이다.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의 소재들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링 소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림34는 눈썹과 언더에 스트로우를 이용하여 붙였다. 그 의 소품즉, 모자나 의상은 고무호수를 이용하여 고대 이집트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그림35는 거즈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감싸놓고 거기에 캔뚜껑, 담배등을 달아 놓았다. 이것은 일상의 폐품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36은 지퍼를 이용하여 아트적인 느낌을 부각하고 있다.

그림37은 나사 못을 이용하여 차가운 느낌의 금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38은 눈가 관리를 위한 메이크업 제품 광고로써 망사를 얼굴에 씌워 놓고 눈가부분을 구멍냄으로써 눈가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낸 이미지 광고이다.

그림39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색상에 대한 광고로써 색상별로 메이크업 베이스를 물감처럼 문양인 듯 칠해 놓은 것이다. 화장품 그 자체를 물감처럼 어떠한 패턴으로 그려 놓은 것 같은 색칠해 놓은 것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소재는 섬유, 종이, 시퀀, 비쥬, 깃털류, 금속, 기타 등 재료의 제한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이고 흥미로운 표현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재에 대한 고종 관념을 탈피하게 되었으며 소재의 확장은 독특하고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7] 종이를 응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1



[그림8] 종이를 응용한 오브제
Gap Press Vol. 40



[그림9] 신문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1



[그림10] 나비모양의 오브제
Gap Press Vol. 9



[그림11] 레이스를 이용한 오브제
Beauty Collection 2003. p136



[그림12] 레이스를 이용한 오브제
Haper's Bazaar 2003. 1



[그림13] 망사천을 이용한 오브제
Pierre Balmain 2003.



[그림14] 나뭇잎, 줄기, 나비등
자연물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1



[그림15] 깃털을 이용한 오브제
Makeup Art 2003. 3.



[그림16] Gap Press 2002. Vol. 40



[그림17] Makeup Art 2003. 2



[그림18] Haper's Bazaar 2002. 9. p231



[그림19] Haper's Bazaar 2002. 9. p392



[그림20] Farbe 2002. 11



[그림21] 비즈를 이용한 오브제
Beauty Collection Vol. 1



[그림22] 시퀀을 이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9.



[그림23] 비즈를 이용한 오브제
Beauty Collection Vol. 1



[그림24] 스톤을 이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6.



[그림25] Vogue Korea 2002. 1.



[그림26] 스팅글을 이용한 오브제
Haper's Bazaar 2002. 9



[그림27] 오즈세컨 광고
Haper's Bazaar 2002. 9.



[그림28] 옷편을 이용한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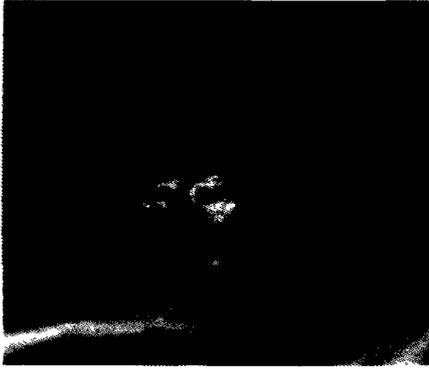
[그림29] 알루미늄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9.



[그림30] 클립을 이용한 오브제



[그림31] 금속 수세미를 이용한 오브제
Elle Korea 2002 . 9



[그림32] 스트로를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5.



[그림33] 거즈와 캔뚜껑을
이용한 오브제



[그림34] 지퍼를 이용한 오브제
Farbe 2003. 2



[그림35] 나사못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1. 10.



[그림36] 망사를 이용한 오브제
Haper's Bazaar 2002. 9



[그림37] 화장품을 이용한 오브제
Vogue Korea 2002. 3.

V.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아트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근본 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만 치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맞추어 기괴하거나 비정상적인, 과장성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인체 전체를 표현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가장 실험적이고 예술성을 표현하기 좋은 것이 오브제의 표현이다. 이질적인 소재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디자인의 영역을 무한히 넓힐 수 있는데 의의를 둔다.

현대의 예술가들은 산업화에서 나온 기계나 대량생산 생산품을 일상생활의 진보적인 요소로 받아 들여 예술적인 표현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와같은 경향은 도시생활의 기계화와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계 또는 기계형태와 유사한 이미지들이 전통적인 이미지에 상응하는 전위의 산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렇듯 기계 생산품은 현대 예술에서 작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도로 기존의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계 부품이나 컴퓨터 부품 등의 공업제품들을 오브제의 소재로 도입하여 총7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오브제는 작가의 개성과 미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다면 어떤 것이든지 아트 메이크업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소재 확장의 계기를 가져다 주고자 한다.

2. 작품 제시

작품 1

가. 소재 : 컴퓨터 칩, 러버마스크 그리스페인트 칼라(갈색, 빨간색, 검은색)
벌드캡, 라텍스

나. 주제 : 인간성 회복

다. 작품설명

인체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부착함으로써 기계화에 물 들어 버려
피폐해지고 병들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주고 있다. 기계문명 속에서 소외되
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세태를 고발한 작품으로 당연히 옹호되어야 할 인간성이
버림받는 현대인의 삶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했다.

머리를 정리한 후 스프리트검을 이용해 벌드캡을 씌운다. 벌드캡에 경계 부
분을 없애기 위해 아세톤으로 녹여 준다.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 입주변과 목
부분을 당긴 후 라텍스를 발라 준다.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드라이어 이용해
건조시킨 후 짙은 살색 파우더를 발라준다. 어두운 살색 러버마스크 그리스페
인트로 머리, 얼굴, 목 부분을 스폰지를 이용하여 두드리듯이 발라 준다.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 입주변과 목부분을 당긴 후 라텍스를 발라 준다.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드라이어 이용해 건조시킨 후 짙은 살색 파우더를 발라준
다. 갈색 러버마스크 그리스페인트를 눈 주변이나 얼굴을 부분적으로 칠해 피
폐되고 병든 모습을 설정한다. 부분적으로 빨간색 그리스 페인트를 칠해 상처
가 나 있는 듯한 것을 표현한다. 머리 한 쪽 면과 반대편 쪽의 눈에 컴퓨터
칩을 스프리트검을 이용하여 붙인다. 목의 주름이 있는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칩을 붙여 기계화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작품 1 <기계부속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 2

가. 소재 : 플라스틱, 전기선, 벨드캡, 흰색, 살색 라이닝 칼라, 러버마스크 그리스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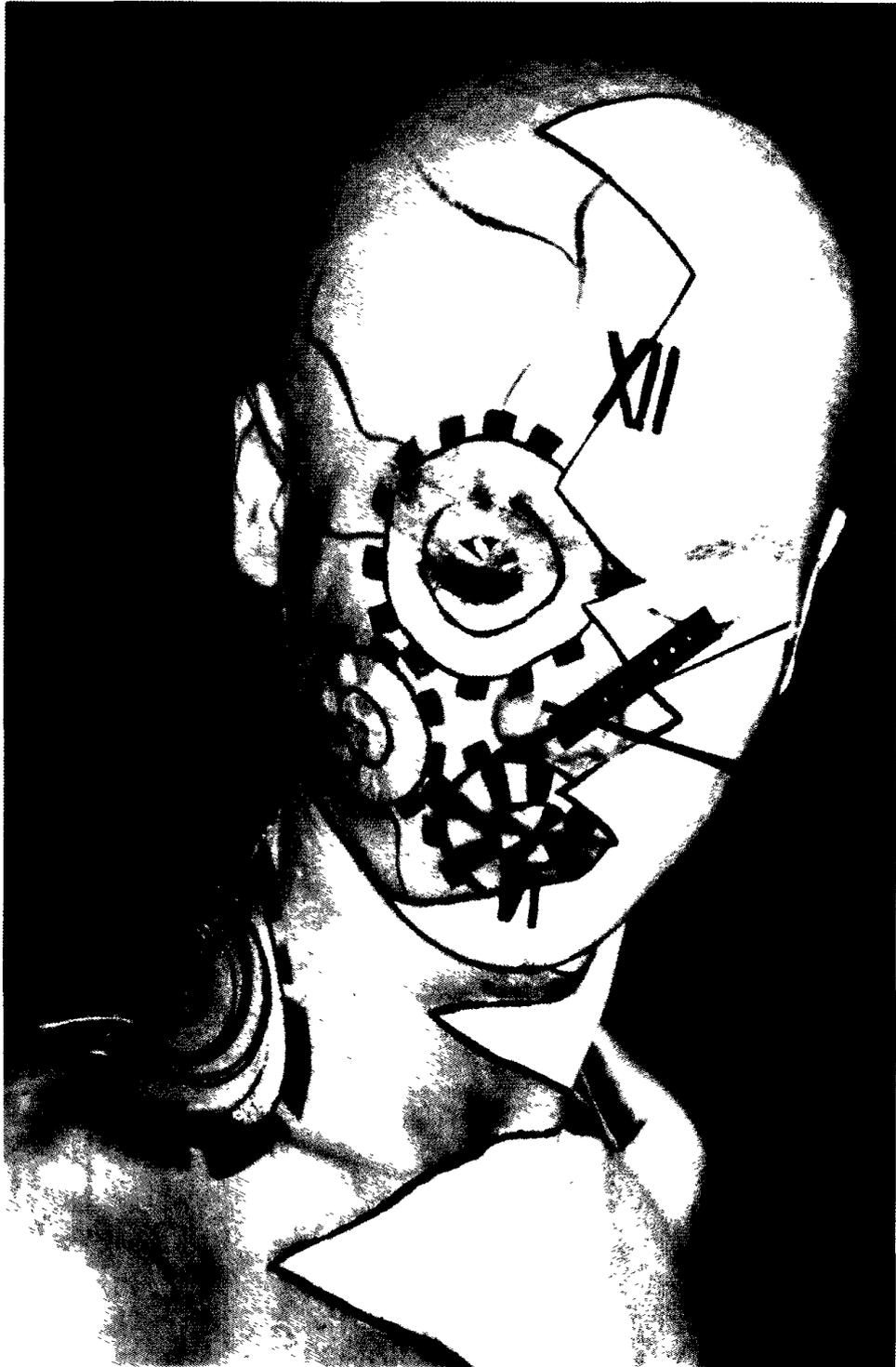
나. 작품 주제 : 일상에서의 전환

다. 작품 설명

항상 반복되어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똑같은 일상에 익숙해져있는 나의 모습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벨드캡을 씌우고 러버마스크 그리스페인트를 이용하여 머리에서 가슴 위까지 한쪽은 흰색으로 칠하고 검은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하여 라인을 그려 넣었고 반대편은 살색으로 칠하였다. 양쪽을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대비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얼굴 부분에 톱니 모양을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고 어깨에도 톱니의 일부분을 그려 넣었다. 톱니모양을 빨간색, 은색, 노란색, 검은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하여 그렸다. 혼합하여 그림으로써 일상이 항상 반복되게 돌아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시계의 표현을 위해 검은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하여 숫자를 머리 부분에 그렸고 초침, 분침, 시침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플라스틱을 이용하였다. 머리부분에 빨간색, 파란색, 라인을 넣고 어깨에 그려져 있는 톱니모양에 입체적인 느낌을 위해 전기선을 붙였다.



작품 2 <플라스틱과 전기선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 3

가. 소재 : 전선 코넥터PG1.25, 구리선

나. 주제 : 하나의 이미지 표현

다. 작품 설명

모델의 피부톤 보다 약간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얼굴에 입체감의 표현을 위해 섀딩과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넣고 파우더도 두껍게 깔아 준다. 눈썹은 검은색 새도우를 이용하여 진하게 그린다. 흰색 아이새도우를 눈썹 뼈에 넣음으로써 눈에 입체감을 준다. 검은색 아이새도우로 아이홀을 강조하고 끝을 길게 퍼 준다. 아이홀 아래쪽에는 흰색 새도우를 넣어 준다. 눈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두껍게 그렸으며, 언더에도 라인을 넣었다. 한 쪽면 얼굴과 어깨, 팔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헤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 아쿠아 칼라로 문양을 넣었다. 라인의 안쪽에는 부분적으로 갈색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꽃의 이미지를 좀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프리트 검을 이용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금색 전선 코넥터를 꽃잎의 모양으로 만들어 붙였다. 좀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잔가지의 모양을 구리선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붙였다. 입술은 빨간색 립스틱을 이용해 아웃커브로 그려 넣었다. 볼터치는 광대뼈를 강조하고 직선적으로 넣어 주었다.



작품 3<PG1.25와 전선을 이용한 오브제>

작품 4

가. 소재 : 스위치 단자, 코넥터 , 라이닝칼라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핸드폰 부속, 반짝이 속눈썹

나. 주제 : 환타지 이미지 메이크업

다. 작품 설명

베이스는 모델의 피부 톤 보다 밝게 깔았다. 눈썹은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을 이용하여 길게 그렸다. 아이새도우는 빨간색 라이닝 칼라로 바나나 기법을 이용하여 아이홀을 그라데이션 했으며 아이홀 아래쪽에는 금색의 라이닝 칼라를 넣어 주었다. 홀라인과 눈썹을 연결하여 라인을 그리고 화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녹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점을 찍듯이 표현하였다. 아이라인은 보라색으로 길게 뻗으며 언더에는 빨간색으로 라인을 그렸다. 눈의 뒷부분에 선적인 느낌을 연장되게 그려 눈이 길어 보이게 표현했다. 속눈썹은 반짝이 속눈썹을 붙여 주었다.

이마에는 빈디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금색 코넥터를 V자 모양으로 붙였다. 눈 아래에는 눈 모양대로 스위치 단자를 붙여 넣었다. 끝에는 검은색의 핸드폰 부속을 이용해 포인트를 주어 환타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입술에는 오렌지색 립스틱을 칠하고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립글로스를 발랐다.



작품 4 <1813 스위치단자를 이용한 오브제>

작품 5

가. 소재 : 50, 검은색, 흰색 라이닝 칼라

나. 주제 : 유혹의 소용돌이

다. 작품 설명

현대 기계 문명에 물들어 인간들은 문명의 복잡함 속으로 유혹되어 깊이 빠져든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다.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구성화하여 표현했다.

복잡하고 미로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곡선적으로 디자인하였고 강한 느낌을 설정하기 위해 흰색과 검은색의 라이닝 컬러로 명도의 대비를 이용했다. 부분적으로 스위치 연결 부속인 50를 이용하여 맞물려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붙임으로써 기계적이고 산업화가 현대 사회가 얼마나 현대에 팽배해 있는가를 보여 준다. 몸의 중심부분에 모터 드라이버를 부착하여 우주의 중심인 인간의 근원에까지 문명이 침투하여 자아를 상실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여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5 <5 ϕ 를 이용한 오브제>

작품 6

가. 소재 : 동축 코넥터, 흰색, 검은색 라이닝 칼라, 은색 펄, 검은색 골판지

나. 주제 : 가식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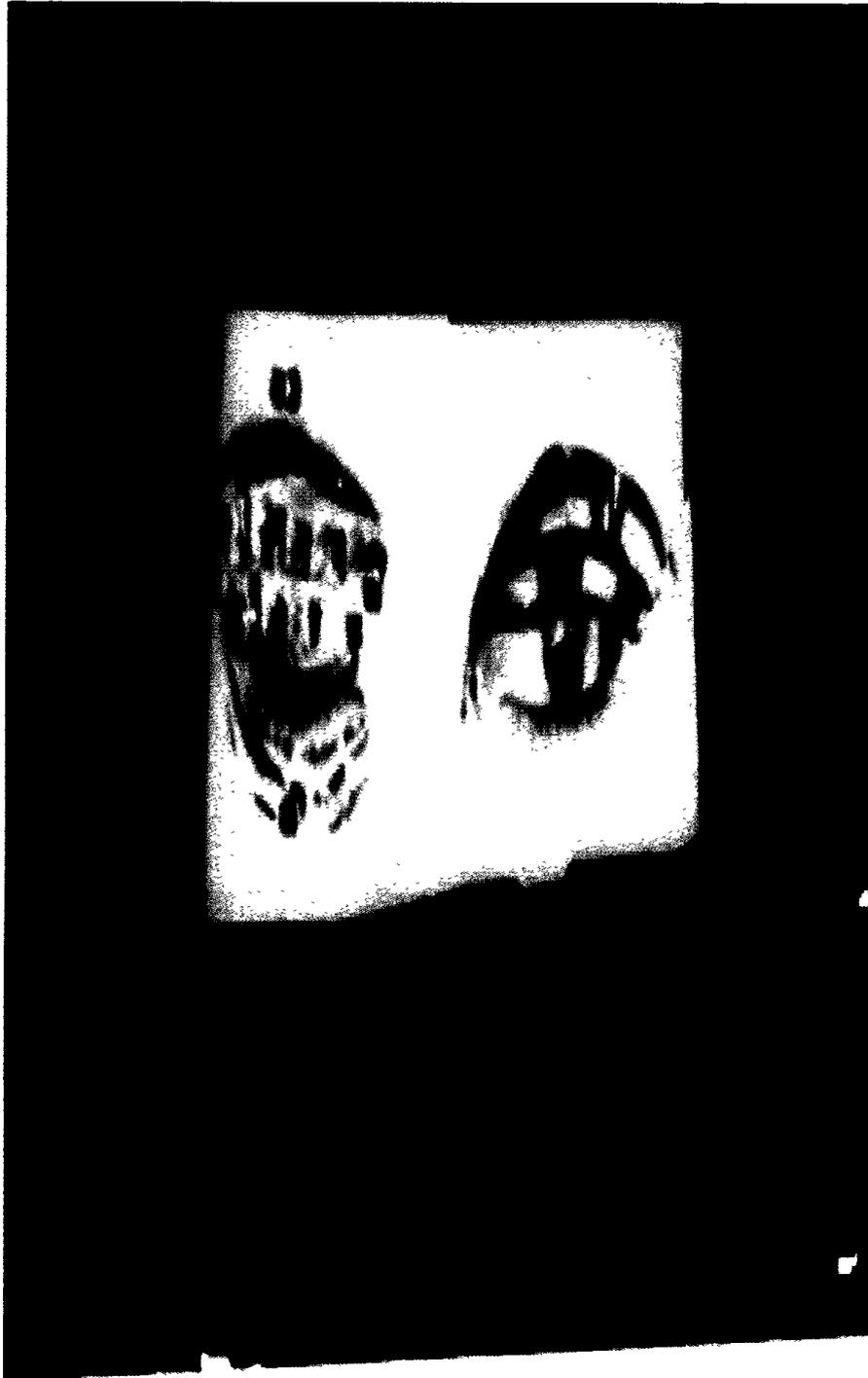
다. 작품설명

겉보기에는 맑고 화려해 보이나 속마음은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만을 내 보인다. 세상을 보는 부분도 남에게 보여 주는 것도 눈이다. 눈은 웃고 있고 화려하지만 그 눈 속에 감춰 있는 모습은 거짓과 위선뿐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표현을 위해 베이스를 흰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했다. 피부색이 보이지 않게 두껍게 깔아 주었다. 눈썹을 길게 뺐으며 눈썹 위에 은색 펄을 이용하였다.

한쪽 눈에는 흰색과 검은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하여 표현했고 다른 한쪽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한 위에 핸드폰 부속인 동축코넥터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붙여 주었다. 동축코넥터가 붙여 있지 않은 부분에는 은색 펄을 칠해주어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해 주었다.

눈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에는 골판지를 이용하여 붙여줌으로써 자신을 감추고 남에게 보이기를 꺼리려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 6 <동축코넥터를 이용한 오브제>

작품 7

가. 소재 : 케이블 타이, 와샤, 250황TR, 빨간색, 파란색, 흰색, 금색, 은색 펄

나. 주제 : 우주

다. 작품설명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결합체인데 인간의 모습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지만 모든 우주의 근원인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우주의 주체가 아니고 수동적이고 소심한 단지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체 베이스는 금색을 이용하였고 우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형의 모양을 디자인하였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라이닝칼라로 그라데이션을 하여 표현하였다. 하이라이트를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은색펄을 이용하여 빛이 발하고 있는 느낌을 표현했고 하이라이트의 반대편에는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넣었다. 눈 주변에 와샤를 붙였고 도형과 도형이 겹치는 부분에는 코넥터인 250황 TR을 붙여 인간이 아닌 기계들이 우주의 많은 부분에 자리잡고 있음을 표현했다

머리에는 케이블타이를 전체에 꽃아 놓아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우주는 지금은 아름답고 빛이 나지만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작품 7 <와샤와 250황TR을 이용한 오브제>

VI. 결 론

현대 미술에서 일상 생활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한 오브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응용되어져, 창조적인 실험 정신과 자유로운 조형예술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과거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전적으로 맞추는 획일화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성 표현을 중시하는 다양화 경향, 주관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예술적 조형성과 표현성을 갖는 오브제에 대한 연구와 아트 메이크업 표현방식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대해 분석하고 오브제의 소재 중 기계적인 생산물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마치 화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의 얼굴과 몸에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을 가지고 얼굴 혹은 신체를 캔버스로 생각하고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아트 메이크업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써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작품의도에 따른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체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방식 가운데 오브제의 표현은 일반 메이크업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조형적 요소를 가장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재나 표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본 논문은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대의 미적 기준

과 창조적인 표현욕구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조형적 소재를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표면에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풍부한 조형적인 표면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메이크업 기본재료 이외에 종이, 깃털, 나뭇잎, 레이스, 망사류, 시퀸, 비즈, 스톤, 스팅글, 금속류, 기타(, 음식물, 자크, 알루미늄, 나사못, 캔뚜껑, 스트로우, 금속수세미, 등) 기타 산업재료로 구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오브제의 소재를 이용하여 기계부속이나 컴퓨터 부속과 같은 공업제품을 소재로 이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에 장식적인 요소로 적용시켜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 확장은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아티스트가 자신의 창작활동의 수단으로 무엇이든 메이크업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재료의 해방을 가져와 조형의 장을 열어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에 맞게 다양한 기법도 발달되어 사용됨으로써 형태의 다양화를 이루어 기존의 미의 개념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고, 아트 메이크업을 새로운 예술적 영역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사물이 본래의 갖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일상용품이나 공업제품도 예술작품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유발시키며 비예술이 예술에 흡수되어 일상과 예술이 동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이 외적 표현의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예술의 범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오브제는 시각적 즐거움을 특성을 지니므로 인간의 장식적 표현 욕구가 계속되는 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존재할 것이며 표현될 것이다.

창조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식이나 개념에 얽매임 없이 개방적인 태도와 창조적인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졌을 때 아트 메이크업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발전되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BAEUTY & HEALTH 연구회 역. 『메이크업& 스타일 100년사』, 현문사, 2001
- 이화순 외, 『The Art of Makeup』, 형설출판사, 2003
- 김춘득,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2002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 유송옥 외, 『패션문화사』, 교문사, 1996
- 김영희, 『토탈메이크업』, 정문각, 2001
- 한국방송위원회 편, 『방송문화』, 1998
- 박덕흠,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재원, 1990
- S.알렉산드리안, 『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 역, 열화당, 1984
- 임염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 이일, 『현대미술의 궤적』, 동화출판공사, 1974
- L.벤투리, 『미술비평사』, 김기수 역, 문예출판사, 1988
- 김영철 역, 『20세기 미술의 시각』, 한국색채문화사, 1993
-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著, 전경희 編, 「팝 아트」, (서울: 열화당), 1995,
- 박용숙, 「현대 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 집문당)
-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8,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논 문]

- 김선아, 오브제 개념에 의한 현대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논문, 1997
- 이수영, 마르셀 뒤샹 회화와 오브제 개념,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3

- 최규선, 누보레알리즘에 있어서 오브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4
- 이호철, 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아쌍블라주의 제양상과 그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장남경, 오브제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정희, 오브제 표현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 3.
- 이귀영, 20세기 미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미용 학회지, 1997.
-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35.
- 노아영, 현대 아트 메이크업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정기 간행물]

- Elle Korea, 2002, 1.
- Elle Korea, 2002, 7.
- Elle Korea, 2002, 6.
- Elle Korea, 2002, 9.
- Vogue Korea, 2002, 1.
- Vogue Korea, 2002, 2.

Vogue Korea, 2002, 5.

Vogue Korea, 2002, 9.

Vogue Korea, 2001, 10.

Farbe, 2002, 1.

Farbe, 2002, 11.

Farbe, 2003, 1.

Farbe, 2003. 2.

한국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1.

한국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2.

한국분장예술인 협회, Makeupart, 2003, 3.

Gap press, '2002 S/S', Vol. 40.

Gap press, '2003 S/S', Vol. 9.

Haper's Bazaar, 2002, 9.

Haper's Bazaar, 2003, 1.

외국서적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

Francois Baudot,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materials of object expressed in the art make-up

You, Jeong-JU

Major in Make- 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Modern art make-up expresses autonomy in the divers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oriented periodic situation. It also shows creative experimental mind through the activity of re-illuminating the expression technique and material of formative arts which have been presented by each Art.

Art make-up is the art of presenting the world of mental image working with human body and the world of beauty which expresses the individuality by decking oneself out with many kinds of material.

Art make-up raising human body to the higher dimension, Art is not just a notions of beauty but can be mentioned as a culture which is having been diversified and individualized since the primitive according to the change of values.

Modern Art make-up is the field of art re-illuminating human body and it is designing a human body with creative techniques.

This thesis is the study of object which have broaden the position of

art make-up to the unique field of art and try to find out the role of object presented in the art make-up not in the art.

Object has been existed from the ancient times but the name has not been called.

Since then through Dada and Surrealism, the name has been settled and people invested object with the role of revealing the dream, desire and unconscious world.

And after the pop art has been appeared, object escaped the limited world of art and broke the boundary with ordinary life and it keeps widening its meaning and role.

The object which broke the boundary with ordinary life has been applied to the make-up which have had deep relations with ordinary life. In the Art, the main subject of the expression is the author and like this, in the make-up, the make-up artist endows the objects with new meaning and they will be newly acknowledged as a free formative media of art.

Art make-up is the most dynamic and active expression and is the change of understanding which is going to deny typical and general recognition.

In modern society, most of the people are being attracted by the unique design and visual splendor of art make-up using various material.

The formative object appeared in the art make-up has not been emphasized by itself but just treated as a dyestuffs so, it cannot be self-reliance.

The formative object can become any kind of material if it is suitable to present the authors intention. The effort to overcome the limit of materials and to free the materials from the original identity to the new significance is being pursued.

In this thesis, you can find out that the materials used for art make-up is becoming various like naturals, metals, papers, ordinary things, ready-made articles, twinkling materials and the fixed idea about material will be changed.

Expansion of material became the momentum to provide unique idea to art make-up design.

With the basis of preceding thesis,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for me that art make-up is a field of a formative art. The work was done by expressing image made of materials from ordinary life. Fabrics, zipper, parts of machines were used as a decoration for various presentation.

The object which expressed in the art make-up is free from the traditional design concept and has brought new concept of unique design and therefore it presents limitless possibility for art make-up design.

Objects and materials existing in the ordinary life can become the materials of art make-up. In this regard, more positive and dynamic development and attempt for new design is being expected.